

기관지 통증 등 신고 354건...연기·분진 2차 피해 우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흘째
광산구·금타, 주민 피해 실태조사
진화율 95%...당국, 중장비 동원
시민단체 “대기오염 정밀조사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진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유해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사흘째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관지 통증부터 두통, 피부 발진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재로 인한 연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인적·물적피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화재 진화율은 95%로,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잔불 진화와 연기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산구에 접수된 화재 피해 신고는 35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지 통증, 두통, 피부 발진 등 인적피해는 167건, 분진 등으로 인한 물적피해는 120건이었다. 영업 보상 등을 요구하는 기타 신고는 67건에 달했다.

인적 피해 상당수는 고무 등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물적피해의 경우 불에 탄 고무 분진이 상공에 퍼졌다가 떨어져 아파트와 주차 차량 등에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많았다.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는 금호타이어와의 협의를 거쳐 인근 주민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 피해 조사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광산구는 송정보건지소 1층에 공동 접수처를 설치했다.

피해현황 실태조사는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향후 금호타이어에서 피해 보상 절차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불을 모두 끄더라도 2~3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현재 굴삭기, 무인 방수 파기차 등 중장비를 동원해 막바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진화율은 95%로, 불이 난 2공장 내부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다.

화재 당시 2공장에는 타이어 원료로 사용하는

생고무 20t 가량이 보관돼 있었고, 생고무를 예열하는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원인 불명의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굴삭기로 벽을 허물어 불씨가 남아 있는 장소에 소방용수를 뿌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소방펌프에 탑재돼 있는 송풍기 등 장비로 연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17일부터 전국에서 온 특수장비를 대거 투입해 약 31시간 40분만에 주불을 잡아냈고, 이날 중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광주공장 정련 공정 건물 내부가 이날 오후 붕괴 조짐을 보여 화재 현장 내부로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철수했다.

3층 건물 가운데 2층과 3층 바닥이 아래로 50cm가량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불을 끄더라도 재발화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과수는 이날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화재 진화가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21일 합동감식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2공장 내 정련 공정 지점에서 경찰,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하려고 했지만, 불씨를 아직 제거하지 못했고 추가 붕괴 위험 우려에 다음으로 연기됐다”며 “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사전 조사가 이뤄졌고, 무인 방수 파기차와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불씨 진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 연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속출하자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는 주민 건강·환경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고에서 우려되는 점은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의 대기 중 방출이다”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불완전 연소 생성물, 기타 유해 화학 물질 등이 대기 중으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확산 범위와 속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사후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알림·대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인근 한 식당에 화재 진압과 주변 통제에 투입된 소방·경찰관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태규 기자

“따뜻한 밥 한끼”...현장 소방관에 온정 손길 ‘훈훈’

인근 식당서 소방관 무료식사 제공
소방대책본부에 접라면·음료 기부

“화마와 싸우시는 소방관분들을 위해 휴식공간과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맹렬한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하영 대표(37·여)는 지난 17일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 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이 대표의 가게 앞 골목길까지 검은 유독가스가 가득 차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재 진압에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선뜻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이 대표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골목길을 뒤덮었고 매캐한 냄새가 식당 안까지 들어왔다”며 “주변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에서 소방관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소방대원들에게 제공한 메뉴는 김치찌개와 동태탕 등 평소 식당에서 판매하는 따뜻한 고등한 식사였다.

화재 발생 첫 날 검은 재로 뒤덮인 소방복을 입고 지친 표정으로 식당을 찾은 소방관들은 연신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따뜻한 식사를 하는 모습에 이 대표는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위험한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 뿐이었다”고 했다.

화재 발생 사흘째인 19일 오전에도 이 대표는 소방대원과 경찰,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금호타이어 직원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다.

비록 전날 주불 진화 완료로 인해 전국에서 온 소방대원들이 복귀해 식당을 찾는 발길은 뜸해졌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요일 정기 휴무로 인해 재료가 없어 소방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현장에는 시민들과 봉사단체들의 따뜻한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광산구 이통장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봉사단체들은 소방대원들을 위해 식사와 음료, 간식 등을 챙기고 후원 물품을 정리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박병기 수완동 자율방재단원(59)은 “화재 발생 3일차가 돼서야 소방관들을 위한 자원봉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제설작업 중 다친 공무원, 지자체 상대 손해소 승소

제설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A씨가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성군이 A씨에게 일일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4,624만 8,211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성군은 A씨에게 피복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성군이 안전화 착용 확인 등 구체적인 보호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금타 광주공장 진화 소방관 사칭 ‘노쇼’...경찰 수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압 소방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남구 한 음식점 업주로부터 소방관을 사칭한 신원 미상 인물에게 속아 20여만원 상당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업주 A씨는 “김치찌 15인분, 공깃밥 17개를 진화가 한창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문 전화를 받았다.

소방관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말에 평소 가격보다 저렴하게 결제하기로 했는데, 주문자는 음

식을 가져가기로 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주문자는 뒤늦게 음식점에 연락해 “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특정 업체의 전화번호를 남기며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피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소방관을 사칭한 범인을 추적 중이다.

최환준 기자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노래홀,홀덤펀) ▶ 6층 (전용 60평) (보2천,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	